



순창군이 농촌체험관광 3만명 달성을 선언하고 농업 6차산업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나섰다.

# “농촌체험 3만명 유치한다”

### 순창군, 네트워크 구축·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순창군이 농촌체험관광 3만명 달성을 선언하고 농업 6차산업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순창지역에서 25개 농장에서 농촌체험 관광을 진행한 관광객 수가 19,00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는 3만명 유치를 선언하고 5가지 관련사업에 2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이 올해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 지원사업, 농촌체험관광 팜투어사업, 대사성 치유농장 육성사업이다.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역 체험농장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공동마케

팅, 체험프로그램 연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촌교육농장 품질 향상사업은 관내 정식 교육농장으로 인정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자율화기재와 연계한 학생체험객 유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또 도시소비자들이 농장을 방문해 농장문화를 체험하는 팜파티 지원사업과 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해 실시하는 팜투어 진행사업도 진행해 도시민들이 순창만의 독특한 농촌체험 관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사성 치유농장 육성사업도 주목 받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대사성 질화에 효과가 있는 음식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사성질화나 치유농장은 순창만의 독특한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이다.

19개소를 선정해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준비

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품질관리와 서비스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체험객들이 대사성 치유농장 체험후 개선 사항을 접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관광을 즐기는 농촌체험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순창은 고추장 등 전통 장류와 건강에 유익한 바쁜먹거리를 활용한 독특한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장을 선점하고 6차 산업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25개의 체험농장에서 415회에 걸쳐 고추장 만들기, 약밥 만들기, 미니 효소 만들기, 수세미 만들기, 블루베리, 오디, 딸기 밤 수확 등 농촌체험관광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의 겨울이 전지훈련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우수 유소년 축구팀, 상무를 비롯한 대학 실업 복싱팀, 테니스 꿈나무들이 남원을 찾아 체력과 기량을 다진다.

## 남원의 겨울 전지훈련 열기가 뜨겁다

### 축구팀 등 1430여명 선수와 지도자들 실전경험 등 통해 실력 배양

남원의 겨울이 전지훈련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우수 유소년 축구팀, 상무를 비롯한 대학 실업 복싱팀, 테니스 꿈나무들이 남원을 찾아 체력과 기량을 다진다.

남원시에 따르면 5일부터 17일까지 13일 동안 유소년 축구 U-12, U-10 25개 팀 1,430여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남원 스포브 리그에 참가하여 실전경험과 전지훈련을 통해 실력을 배양한다.

전북현대, 울산현대, 수원 삼성 등 프로팀 산하 유소년팀 초청 등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수준 높은 동계훈련 및 연습경기가 가능하며, 올해는 중국 광저우 쉬위(省城) 유소년 축구단 30여명이 남원을 찾는 등 국제적인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84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준섭선수의 고향이자 전국 체전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남원시청 복싱선수단의 노하우 및 스파링 등을 위해 상무, 충주시청 등 8개 실업 및 대학 팀 선수들이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팜방울을 즐기고 있다.

이덕희 김준호 선수를 배출한 테니스의 메카인 남원 춘향골 다목적구장에서는 7개 초등학교 56명의 테니스 선수들이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지리산이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 및 학부모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몽골텐트와 난로 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의 대회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대한의 전지훈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전지훈련으로 숙박시설 및 음식집 이용, 특산품 쇼핑 등 1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전지훈련팀 유치 및 각종 국제·전국 대회 개최 등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농기센터, 젓소 가시광선 노출 면역력 높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중)는 관내 젓소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계 “비집습 면역증진기 활용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젓소는 우유생산에 따른 농가별 소득 차이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면역력이 높은 소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체세포수가 낮고, 낮은 체세포수는 높은 등급을 받게 되어 높은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에 젓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축사 내에 광양자조사를 설치하여 가시광선을 쬐도록 설계하여 자연스럽게 소들이 가시광선에 노출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활용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소들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축사 내에 광양자조사를 설치하면 된다.

빛을 쬐이는 소들은 면역력이 높아져 체세포수도 낮아지고, 유량도 높아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봉의 3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늘지고 햇빛양이 적은 농가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젓소나 양돈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남원농가들에게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식품안전관리인증 통과

### 과채주스 등 3개 유형 7개 품목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하는 과채주스 등 3개 유형 7개 품목이 소규모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인증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향후 제품 판매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윤석현 임실파닭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만큼 기준을 지키고 위생적인 작업을 통해 신뢰받는 고품질 제품생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가공센터는 연면적 1,058㎡의 2층 규모로 가공장비 24종 총 38대를 보유하고 현재 1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식품 CEO 양상을 위해 창업절차와 위생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소규모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인증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향후 제품 판매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윤석현 임실파닭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만큼 기준을 지키고 위생적인 작업을 통해 신뢰받는 고품질 제품생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가공센터는 연면적 1,058㎡의 2층 규모로 가공장비 24종 총 38대를 보유하고 현재 1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식품 CEO 양상을 위해 창업절차와 위생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복지 실현

남원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120동을 개량하고, 빈집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사업비 용자금은 연리 2.0%,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자금은 신축일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증축 및 리모델링은 50% 이내이다.

용자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이다. 연면적 100㎡이하

일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참고·차고 등은 제외된다.

남원시는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타 부처와 연계해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함께 측량 수수료 30% 감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 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1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2월 초 확정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농어촌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접수

고창군이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7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정비대상은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며, 군은 국비 2억45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세대당 100만원~25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농촌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로컬플러그



## 고창군 상하면, 군정 홍보 마을좌담회

고창군(군수 박우정) 상하면이 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정을 홍보하는 마을좌담회를 시작했다.

상하면은 현장에서 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좌담회를 이달 말까지 36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5일 전했다.

좌담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철을 상하면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상하면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황성만 대표, 100만원 성금 기탁

황성만(65, 쌍암리) 한수철관 대표는 지난 4일 운안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황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청소년 시절 서울로 상경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한수철관 대표를 지내고 있으며 그동안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꾸준한 선정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바탕기 면장은 “전달 받은 성금은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재해를 맞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경찰, 빈집털이 예방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썬치파출소(소장 서정선)는 동절기 특별방범 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과 현금다액 취급소, 각 마을독립주택과 빈집, 공폐가에 대한 빈집털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농한기 겨울철 시골어르신들의 경로당 모임 집중시간대 빈집털이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지차량 기록부를 비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와 귀금속은 파출소에 보관토록 안내하였다.

특히 오는 설 명절 즈음하여 신중 보이 스피싱·스미싱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하였다.

한편, 썬치파출소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상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귀가길 순찰차량 교통편의를 제공 하는 등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